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가솔린, 식품 인상 커
- Bloomberg: SF 연방은행총재, “중립금리가 팬데믹 전보다 더 높을 수 있어”
- WSJ: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리 동결 연장 될 듯

[미국 금융]

- Bloomberg: 5% 채권 시장은 모두에게 고통주게 된다

[뉴욕]

- WSJ: 타임스퀘어,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

[주택]

- Bloomberg: 모기지 10년만에 최고치... 7.67%

[오일]

- The Economist: 유가 하락, 배럴당 100불 예상 뒤엎다
- CNBC: PNR CEO, “이란 전쟁 개입하면 유가 급등 가능성”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ess: 구글, “앞으로 패스키로 기존의 패스워드 대체할 것”
- CNBC: 스텔란티스,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32억 불 투자
- WSJ: S&P 기업들 수익 침체 끝나다
- WSJ: 아마존, 고객들 재구매 유도한다
- WSJ: Exxon, 600억 불 규모로 경쟁사Pioneer 인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Rise by More Than Forecast on Gasoline, Food

9월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가솔린, 식품 인상 커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9월 미 생산자에게 주는 가격이 예상보다 컸다.
-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최종 수요와 관련한 생산자물가 지수는 8월에 비해 0.5% 상승했고 특히 휘발류 가격은 5.4%나 증가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물가지수는 0.3% 증가했다.
- 1년전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생산자물가 지수가 2.2% 상승했다.
-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계산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주목되는 수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Daly Says Neutral Interest Rate Could Be Higher Than Pre-Pandemic

SF 연방은행총재, “중립금리가 팬데믹 전보다 더 높을 수 있어”

-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총재인 Mary Daly는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아 질수 있지만 금리가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5%가 새로운 중립금리 수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수치가 새로운 중립금리라는 증거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와 맞서야 하는 정책 금리”라고 말했다.
- 그는 시카고에서 글로벌문제시카고위원회(CCGA) 주최 한 타운홀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2.5에서 올라가서 즉, 명목상 금리를 2.5에서 3 사이에 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50베이시스 포인트지 250베이시스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국 경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거의 제로에서 5.25%~5.5% 끌어올린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 이러한 회복력 때문에 연준 관리들이 팬데믹 이전부터 2.5%로 추정해온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Higher Bond Yields Likely to Extend Fed Rate Pause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리 동결 연장 될 듯

- 요지: 연준 관리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장기 금리 상승이 아마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7월에 연준은 금리를 22년만에 최고치인 5.25%~5.5%로 올렸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며 올해 남은 두번의 회의중에 한번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 장기 국채 금리는 7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 상승해 9월 회의 이후에 탄력을 받았다.
-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투자자들이 안전성을 원하면서 약간 하락해 4.654%였지만, 수익률은 연준의 마지막 회의였던 9월 20일 4.346% 보다 높고, 마지막 금리 인상일인 7월 26일의 3.850%에 비해 상승했다.
- 이와 관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he 5% Bond Market Means Pain Is Heading Everyone's Way
5% 채권 시장은 모두에게 고통주게 된다

-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계와 기업체와 정부는 ‘공짜’ 돈의 세계에서 살았다.
- 그런데 최근에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하면서 모든면에서 뒤바뀌고 있다.
- 지난 금요일 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자 수익률이 다시 상승했다.
- 이와 관련Deutsche Bank AG의 전략가인 Jim Reid는 “최근의 수익률 움직임이 금융 시스템의 어느곳에서 사고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자동차 용자, 공공 차입, 기업 인수 자금 조달 비용 등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시장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Bloomberg 기사

[뉴욕]

WSJ: Times Square Goes From Deserted to Bustling
타임스퀘어,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

- 타임스퀘어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문을 열고, 호텔 매출이 상승하고, 소매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면서 중요한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 한 예로 식당이 급증했다. 타코벨등 패스트 푸드점 뿐만아니라 고급스러운 Mermaid Oyster Ba와 프랑스 카리브해 퓨전 라운지인S'Aimer 등 다양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
- 3분기 소매점은 스퀘어피트당 평균 1천3백42불로 나타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올랐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 Climbs to Fresh Multi-Decade High of 7.67%
모기지 10년만에 최고치... 7.67%

- 미 모기지율이 지난주에 2000년 이래 최고치로 상승해 주택 구입활동에 침체를 주고 있다.
- 10월 6일 끝난 주간에 계약된 30년 모기지율이 14 배이스스 포인트 오른 7.67%로 나타났다고 모기지은행협회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이는 다섯번째주 연속 상승 수치다.
- 주택 구입 신청 지수는 상승했지만 거의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채용자 활동을 포함한 모기지 신청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오일]

Oil prices fall, defying suggestions of a \$100 barrel 유가 하락, 배럴당 100불 예상 뒤엎다

-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은 계속해서 유가를 인상하고 있다. 10월 4일 이들은 비엔나에서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을 줄이겠다고 결정했으나, 유가는 5% 더 감소해 결국 배럴당 86달러를 기록했다.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와중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 논쟁 중이다.
- 유가 상승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유가 수준이 크리스마스나 어쩌면 더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유가 상승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머지않아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먼저, 유가 인상 낙관론자들의 핵심은 예상외로 탄력적인 오일 수요다. 극심한 경제역풍에도, 중국인 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은 이번 여름 기록적인 항공 여행을 세워 휘발유와 등유 수요를 끌어 올렸다. 또한, 올해 거의 하루 160만 배럴에 달하는 세계 운송 연료 수요 증가율도 지금까지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 세계 하루 항공편도 2019년의 96%까지 회복했다. 디젤 수요 증가율도 아직 견고하고 유지되는 중이다.
- 낙관자들은 공급 감소가 오일 생산국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가 2024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오일 전체 수출량은 감소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익은 지난 분기보다 하루 3천만 달러 더 높아졌다. 러시아의 수익 또한 증가했다. 2010년과는 달리, OPEC과 러시아가 줄인 오일 생산량을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채우고 있지 않다. 최근의 유가 하락에 대해선, 낙관론자들은 브라질이나 가이아나 같은 비OPEC 산유국들이 높아진 유가를 통해 이윤을 챙기면서 시장에 오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이와 반대로, 유가 회의론자들은 세계 경제의 영향 때문에 유가 상승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 말한다. 고용 침체와 부채 비용을 부풀리고 있는 채권 수익률 그리고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미 연준의 발언이 유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또한 최근엔 지나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1년 이래로, 미국의 계절 휘발유 사용량이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유가 상승은 기업들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며, 근원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Cleveland의 연준은 전년 대비 오일과 휘발유값을 포함한 9월의 "Nowcast" 값이 4.17%에서 10월 4.19%로 살짝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

한다. (Nowcast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로서, 각 지역의 연준이 개발했다) 더욱이 미국의 높은 금리는 달러의 가치를 올려, 결국 오일을 누구에게나 부담되도록 만들었다.

- 유가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얼마나 장기간 유지될 것인가이다. 전 OPEC 분석가이자 현재 Rystad Energy에 속한 Jorge Leon은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곧 내려올 것이라 말한다.
- 한동안은 유가 낙관론자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크리스마스 이후엔 유가 회의론자들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OPEC 산유국이 오일 생산을 늘려 부족한 공급량을 채울 것이며, 높은 유가는 결국 높은 금리의 여파로 인해 떨어질 것이다. 정보분석 기업인 kpler는 2024년 상반기에 충분한 오일 공급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 그러나, 미지수 또한 존재한다. 기준 유가가 더 낮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공급량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감축은 유가를 올리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유류 비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유가 변동을 야기할지 모른다. (이 기사는 하바스의 이스라엘 전쟁 전의 기사입니다)

The Economist 기사

CNBC: Oil prices could surge if Iran enters the war, Pioneer Natural Resources CEO says **PNR CEO, “이란 전쟁 개입하면 유가 급등 가능성”**

- 오늘 수요일 CNBC의 Squawk Box에서 Pioneer Natural Resources의 CEO Scott Sheffield는 만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한다면, 유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이란은 주요 오일 생산국이자,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 심화한 분쟁은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Brent와 WTI는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에 3.5달러 이상 급등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Google looks to do away with passwords, making ‘passkeys’ the default option **구글, “앞으로 패스키로 기존의 패스워드 대체할 것”**

- 구글이 지문, 안면인식 그리고 핀 넘버를 통해 계정이나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패스키(PassKey)를 만들게 하고 있다.

- 구글은 어제 화요일 패스키를 사용하면, 패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들에게 더 빠르게 서비스와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글은 앞으로도 기존에 쓰고 있는 패스워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패스키 또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 패스키는 YouTube, Search, Maps, Uber 그리고 eBay 같은 앱상에서 패스워드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Stellantis, Samsung SDI to build \$3.2 billion EV battery plant in Indiana

스텔란티스,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32억 불 투자

- 삼성 SDI와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32억 달러 이상을 인디애나의 코코모 배터리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 이러한 소식은 스텔란티스 기업 관계자들과 코코모 소재의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파업을 이끄는 전미자동차노조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오늘 수요일 발표되었다.
-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스텔란티스 배터리 공장은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가 합작 투자를 통해 코코모에 건설할 두 번째 공장이 되며, 이 공장들은 StatPlus Energy라고 불린다. 또한 두 공장은 2천 8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 25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Starplus Energy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며, 2025년 1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두 번째 공장의 경우 2027년 초까지 배터리 전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CNBC 기사

WSJ: Profits Are Making a Comeback

S&P 기업들 수익 침체 끝나다

- 3분기 어닝 시즌(수익 공표 시기)이 진행 중이며, 2분기에 공개된 실적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S&P의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3%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분기의 2.8% 하락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다.
- 더욱이, 분석가들이 어닝 시즌을 앞두고선 자신들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3분기 추정치는 확실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 S&P의 3분기 수익 추정치는 에너지 수익 부문의 34.7% 하락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다면, 2분기 3.6%에서 오른 6.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WSJ 기사

WSJ: Amazon Wants You to 'Buy Again' 아마존, 고객들 재구매 유도한다

- 아마존이 아마존의 앱상에서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아마존은 아마존 앱상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Buy Again” 피드를 적용했다. 이 기능은 고객들에게 식료품이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러 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며, 고객들의 이전 주문기록을 사용한다.
- 시장 정보 기업인 Watchful Technologies에 따르면, “Buy Again” 기능이 최근 여러 계정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 아마존은 지난 몇년 간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에서 저조한 성장과 매출 감소를 겪어왔다.
- 아마존의 이러한 변화는 고객이 더 정기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Subscribe & Save”라고 불리는 기능을 통한 멤버십 기반의 주문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Exxon to Buy Pioneer in \$60 Billion Deal to Create Shale Giant Exxon, 600억 불 규모로 경쟁상Pioneer 인수

- 오늘 수요일 Exxon Mobile은 600억 달러를 지불해 Pioneer Natural Resources를 인수하는 계약에 합의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큰 오일 및 가스 기업 간 거래에 해당한다.
- 기업관계자는 이 거래가 2024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은행 Truist 증권의 분석가인 Neal Dingman은 Exxon의 이번 인수는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유정(oil well) 재고를 늘리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팬데믹 지났지만...'사무실 복귀 쉽지 않네'

뉴욕·런던 등 사무실 공실률 20년 만에 최고치

뉴욕, 런던 등 글로벌 주요 업무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직원들의 출근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무실이 비어있다는 뜻이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올해 3분기 글로벌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RTO, return-to-office)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1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제공하는 코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과 같은 주요 업무 중심지에서 3분기 사무실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